

대회사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6월 민주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군부독재의 잔혹한 탄압을 뚫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그 날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도 벅잡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1985년부터 여성노동자 생존권 대책, 성고문 정권 퇴진, KBS시청료 거부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민주화 운동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여성 지도자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배수건을 쓰고 과감하게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인데, 박군의 죽음은 어머니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성명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용기는 6월 민주항쟁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전두환 정권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최루탄 추방운동 등 6월 민주항쟁을 대중투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지역과 부문에서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많이 등장했고, 여성단체의 연대와 투쟁으로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증가하고 반실업 상태에서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빈곤층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민주주의가 세계화 바람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20년전의 열정과 각오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실질화하기 위해 지역과 직장, 가정에서 생활속의 다양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람을 주체로 세우고 상호 연대하면서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는 오늘, 우리 여성들은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9일